

碩士學位論文

창호(窓戶) 문양을 시문한  
도자 식기 디자인 연구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工藝디자인 專攻

吳 玉 子

2008年 7月 日

# 창호(窓戶) 문양을 시문한 도자 식기 디자인 연구

指導教授 許 敏 子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7月 日

吳玉子の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8年 7月 日

委員長 박 현 영 印

委 員 허 민 자 印

委 員 이 광 진 印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08年 7月 日

## 목 차

|                           |    |
|---------------------------|----|
| Summary .....             | v  |
| I. 서 론 .....              | 1  |
| 1. 연구 목적 .....            | 1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 3  |
| II. 이론적 배경 .....          | 4  |
| 1. 도자 식기 문화의 역사적 변천 ..... | 4  |
| 2. 도자 식기류의 종류 및 특징 .....  | 12 |
| III. 창호 문양의 고찰 .....      | 16 |
| 1. 창호의 의미 .....           | 16 |
| 2. 창호의 역사 .....           | 18 |
| 3. 창살 문양의 종류 .....        | 22 |
| 4. 창살 문양의 조형성 .....       | 27 |
| IV. 작품 제작 및 설명 .....      | 30 |
| 1. 제작 의도 및 방법 .....       | 30 |
| 2. 작품 설명 .....            | 32 |
| V. 결론 .....               | 46 |
| 참 고 문 헌 .....             | 48 |

## 도 목차

|                                  |    |
|----------------------------------|----|
| 도1.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 .....         | 5  |
| 도2.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 .....         | 5  |
| 도3. 고구려 두귀단지와 향아리 .....          | 5  |
| 도4. 백제 향아리 .....                 | 5  |
| 도5. 신라굽다리접시 .....                | 5  |
| 도6. 고려청자 .....                   | 6  |
| 도7. 전통 반상 규범 .....               | 8  |
| 도8. 용기류 .....                    | 8  |
| 도9. 황실 장미 홈세트(한국 도자기) .....      | 10 |
| 도10. 로얄슈퍼화이트 제품(요업개발) .....      | 10 |
| 도11. 옥향 청자식기(선기호 작) .....        | 10 |
| 도12. 분청식기(광주요) .....             | 10 |
| 도13. 토야 테이블웨어 공모전 작품 .....       | 11 |
| 도14. 현대작가의 생활 도자 작품 .....        | 11 |
| 도15. 고려 시대의 반상기 .....            | 13 |
| 도16. 조선 시대의 반상기 .....            | 15 |
| 도17. 범어사 안심료 문 안쪽에서 바라본 문살 ..... | 16 |
| 도18. 통판투조연지수금꽃살문(용문사) .....      | 16 |
| 도19. 안악 3호분 벽화 .....             | 18 |
| 도20. 백제 동탑 편 .....               | 18 |
| 도21. 통일신라 시대 고달사지 부도 살창 .....    | 18 |
| 도22.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살 .....          | 19 |
| 도23. 부석사 삼성각 띠살 .....            | 19 |
| 도24. 부석사 조사당의 날살 광창 .....        | 19 |
| 도25. 수덕사 대웅전의 빗살문 .....          | 19 |
| 도26. 낙선재의 외루와 영룡(玲瓏) 무늬 .....    | 20 |
| 도27. 꽃살문 .....                   | 20 |
| 도28. 날살 .....                    | 23 |
| 도29. 띠살 .....                    | 23 |
| 도30. 정자(井字)살 .....               | 23 |
| 도31. 용자(用字)살 .....               | 24 |
| 도32. 아자(亞字)살 .....               | 24 |

|                          |    |
|--------------------------|----|
| 도33. 완자(卍字)살             | 24 |
| 도34. 빗살                  | 25 |
| 도35. 꽃창살                 | 25 |
| 도36. 송광사 하사당 날살문과 띠살문    | 28 |
| 도37. 띠살문                 | 28 |
| 도38. 남장사 극락보전 솟을민꽃살문     | 28 |
| 도39. 범어사 나한전 어간의 띠살과 띠살문 | 28 |



## 작품 목차

|                          |    |
|--------------------------|----|
| 작품 1. 좋은 날 .....         | 33 |
| 작품 2. 여유 .....           | 35 |
| 작품 3. 봄을 기다리며 .....      | 37 |
| 작품 4. 초대 .....           | 39 |
| 작품 5. 창밖에는 .....         | 41 |
| 작품 6. 가을에는... .....      | 43 |
| 작품 7. 겨울손님을 위한 상차림 ..... | 45 |



Study on Designing Ceramic Tableware by Writing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Chang-Ho  
(Windows and Doors)

Oh, Ok Ja

*Industrial Art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n Ja Huh*

Summary

Since the ceramic tableware is closely related to the eating habits of Korean people, they would be an important element that can best demonstrate the national sentiments of Korea. In order to make beautiful and distinguished tableware, this may require establishing the food culture righteously and time to spare in our living that can enjoy these elements. If it is designed so that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 can be added onto the ceramic ware and the artistry could be shared commonly, this may make a way to succeed to the traditional culture.

Hence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has tried to restructure the formative arts of Chang-Ho (windows and doors) pattern which is a traditional art pattern of Korea and to design the ceramic tableware of holding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 by writing patterns onto the ceramic tablewar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n the process that studies the formative arts of Korean traditional Chang-Ho patterns, I could see that the Chang-Sal (lattice of window) and horizontal/vertical/diagonal patterns hold not only a perfect order, but also balance and harmony only with basic structural patterns. From these, I could feel the visual beauty that comes from a partition of simple and explicit patterns. Especially, Ccot-Sal-Moon (carved flower-grill door) with the elegant patterns and colors of Buddhist temple has exhibited the culmination of Korean beauty as to be converted and designed into the patterns of modern sense.

Second, I have made the ceramic tableware of holding Korean beauty either by writing the patterns of Chang-Sal (window lattice) on the front of ceramic tableware or by restructuring them in part with some blank. As a result, the design of Chang-Ho patterns matched well with the ceramic tableware and made us to feel serene and comfortable.

Third, the overall production method and enamel were prepared while basing on the traditional techniques and the Bakji (paring or peeling) technique was used for the pattern writing (Si-Moon) while trying to express the ingenuousness of traditional beauty and suppressing the colors by inscribing either the patterns with lines or the patterns of Chong-Hwa (blue-flower).

I earnestly hope that our trial of applying the traditional Chang-Ho patterns of Korea in the design of ceramic tableware may help to conserve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n culture and has made a moment of feeling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 in our living. I hope that the design study on the ceramic tableware of traditional beauty and elegance can be continued further in the future so that a lot of ceramic tableware (reflecting the traditional sentiments of Korea) can be produced. In this way, I hope that they can elevate the pride in the artistic beauty of Korea and the traditional beauty can be commonly observed in our living.

# I. 서론

## 1. 연구 목적

인간이 수렵과 채집을 통해 획득한 음식 재료를 가공하여 먹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로 추정된다. 이는 신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에서 불을 지폈던 화덕자리와 불을 이용하여 토기를 제작한 흔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 시대에 이미 벼농사가 정착되었고 귀족식과 서민식의 식생활 계층화가 생겨났으며 발효식품, 저장식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의 융성으로 사찰 음식이 발달하였고 차(茶)문화가 성행하여 청자의 발전을 가속시켰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대가족 제도아래 유교문화가 중시되면서 식생활 문화의 규범이 정립되어 상차림의 격식이 생겨났다. 어느 민족이나 음식 문화는 풍토적 조건과 더불어 생성, 발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고유한 식생활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의 식생활 문화는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통해 그 정체성을 잃게 되었으며, 해방이후 불어 닦친 서구문화와 한국전쟁으로 더욱 피폐해져 그 정통성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외국 문화와 문물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도 유입되었고, '88올림픽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먹거리가 풍요롭게 되자 외식 산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현대에는 아파트 생활과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붕괴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상차림도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래도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식생활 습관이며, 이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요, 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자랑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식문화와 식기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 그 음식을 돋보이게하므로 음식문화와 식생활 용기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위생적이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도자 식기들이 우리 식탁을 꾸미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자산업과 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자기를 아끼고, 사랑하

며 즐길 수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다행히 근래에 들어와 전통 반상기의 양식을 갖춘 한식기가 나타나고 있고 각 가정에서도 작품성 있는 그릇들을 선호하여 개성 있는 도자 식기들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식당에서도 도자 그릇들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은 우리 도자문화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식생활 문화와 식기류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연구 고찰하고 계절에 따라 품위 있게 쓰일 수 있는 도자 그릇들을 디자인 하고자 한다.

디자인의 주제는 우리의 전통 주춧돌이나 사찰, 또는 왕실 등의 창호 문양을 그릇의 문양으로 디자인하여 시문함에 두고자한다. 사찰의 꽃창살이나 낙선재의 창호 문양들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아름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창호 문양의 아름다움을 일상생활에서 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릇의 문양으로 시문해 보고자 한다.

4계절에 따라 그릇의 색상과 형태, 그리고 문양을 변화시켜 계절에 어울리는 식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식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찾는 데 일조하며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고 그 전통적 미감을 일상화시켜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 주춧돌이나 사찰, 왕실 등의 창호 문양을 부분적으로 응용하거나 단순화시켜 그릇에 시문함으로서 전통적 미감을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하여 계절에 어울리는 식기 디자인을 하는데 있다. 조형적인 식기 디자인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심미적인 형태와 이미지의 구성, 적절한 제작 방법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 1) 문헌을 통해 우리의 식기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도자 식기 디자인의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도자 식기 디자인 개발 방법을 연구한다.
- 2) 사찰, 왕실, 일반가옥 등의 창호 문양을 살펴보고, 그 구성과 조형성을 연구하고 재구성하여 그릇의 문양으로 적절하도록 디자인 한다.
- 3) 연구 작품들의 제작은 물레성형방식과 판성형을 주로 하며 소지는 산백토, 백자토, 동영토, 옹기토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고자 한다. 유약은 백자유, 청자유, 재유 등 전통유를 주로 사용하여 식기 문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통적 미감을 살리도록 한다.
- 4) 장식기법은 주로 박지기법을 사용하며 청화나 진사 등을 이용하여 계절의 색감을 표현하도록 하되 지나친 색상 표현을 자제하여 담백하고 소박한 한국 식기의 특징을 살리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도자 식기 문화의 역사적 변천

식생활은 자연 환경을 그 기본으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형성, 발전되어 온 다원적 문화의 소산이다. 식생활의 변화는 곧 식기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각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하며 계속적으로 변천해 왔다.

식생활에 식기가 사용된 것은 현재 전해지는 유물을 통하여 볼 때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본다. 이 때에 사용되었던 기물로는 빗살무늬토기(도1)로 아래가 둥글고 뾰족한 반구형으로서 손잡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무늬는 주둥이에서 상반부까지 전면에 걸쳐 평행된 기하학적 문양이 주종을 이루며 색깔은 붉은색을 띄고 있다. 이러한 토기들은 대개 해안선 부근이나 큰 하천, 하류 해안지역에서 발견되는데 그러한 점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로를 통해 이동하며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릇의 형태로 볼 때 식기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의례용 또는 삶거나 끓여 먹는 조리용 및 저장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sup>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면 빗살무늬토기가 민무늬토기(도2)로 바뀐다. 주로 밀바닥이 납작한 민무늬토기는 비로소 식기들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기능이 세분화되어 용도에 맞게 제작되기 시작한다. 그 형태는 손잡이를 달기도 하고 바닥을 뚫어 찜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식기의 기본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밀이 납작한 항아리, 사발, 접시, 보시기 등의 용도로 쓰인 토기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강변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어 농경문화가 이미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유물과 함께 탄 쌀알들도 함께 발견되어 벼농사도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시대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에 걸맞은 식기들이 만들어진다. 삼국 시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식기는 토기였으며 지역별로

1) 강인희, 『한국 식생활사』, 삼영사, 1991. p.60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토기(도3)는 흑회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기형은 대개 평저형이다. 넓적한 띠 모양의 손잡이가 특징이다. 백제의 토기(도4)는 고구려 토기보다 소지가 정선되어 있고 기형이나 문양이 다양하며, 기종은 항아리, 고베, 병, 벼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신라의 토기(도5)는 회색 계통의 환원염 소성으로 단단하며 우아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원료나 공정과정 등이 토기보다는 거의 석기에 가까움을 보여 준다.



도1.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

도2.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



도3. 고구려 두귀단지과 항아리

도4. 백제 항아리

도5. 신라굽다리접시

통일신라 시대에는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우리나라 식생활에 있어서도 체계가 정착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금속기, 유리기, 목기 등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식기의 종류가 구분되었으며,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사치스러운 식기가 등장하는 등 식기의 종류 및 형태, 기능면에서도 세분화,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왕조는 사회적으로 관료제도의 발달과 불교적 분위기가 깊어감에 따라 사찰과 귀족문화를 꽃피웠다. 살생을 죄악시하고 채식에 강조한 경향이 있었으며,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져 우리 민족의 식생활을 변천의 시대로 이끌었다. 고급스러운 빛깔과 형태의 고려청자는 고려 도자기술의 높은 수준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식기의 고급화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고려자기 중에서 상감청자 기법은 세계적인 도자 기술의 극치로 인정되고 있어 고려의 문화를 잘 대변해 준다. 상감청자 기법은 고려 도공이 개발한 독창적인 기법으로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초반에 걸쳐 제작되었다. 기형이 매우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시문되었고 유약이 맑고 푸르러 문양의 형태들을 잘 보여준다. 그 문양으로는 운학문, 국화문, 모란문, 연화문 등으로 고려인의 시적이고 불교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sup>2)</sup>

고려청자(도6)는 사찰의 기물이나 귀족계급에서 쓰였으며 그 수량도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은 여전히 고화도로 구운 신라 토기류가 주 식기류로 쓰였



청자음각 국화문 탁잔

국화문 상감청자

운학문 표형 주전자

도6. 고려청자

2) 서길용, 『도자실기』, 조형사, 1991. pp.24~25

다. 식기는 형태에 따라 일상용기, 장식용기, 특수용기로 나누어지는데 일상용기로는 대접, 탁잔, 접시, 완, 주전자 등이 있고 장식용기로는 꽃병, 연적 등이 있으며 특수용기로 정병, 종, 향로와 같은 불기(佛器)가 있다. 이러한 청자 문화의 발달은 고려 시대의 문화수준을 표현하는 단적인 증거이며, 고려 시대의 식기는 예술적 차원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의 어느 정도 정돈된 식생활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과 비슷한 형식의 한식 상차림의 격식이 생겨났다. 기본적인 상차림으로는 오랜 전통과 풍습대로 밥과 국, 김치, 나물류로 이루어졌는데 각 가정의 웃어른께 드리는 진지상은 반상(飯床)이라 하여 규범화시켰다.<sup>3)</sup> 이와 같은 반상기는 조선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대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가족의 어른에게 예를 갖춰 반상 규범(도7)을 정립하고 이에 준하여 만들어졌다.

조선 시대 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청자의 뒤를 이어 분청사기가 나타나지만,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그 자취를 감추고 백자류를 중심으로 순백자, 철화백자, 청화백자 등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백자류는 광주분원에서 주로 제작되면서 왕가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서민들은 옹기류(도8)를 주로 사용하였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전통 그릇인 옹기는 기원 전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만들어진 토기에서 출발한다. 그 옹기는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쓰여 부엌 생활 용기 외에도 어업기구, 농기구, 일상 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물들이 만들어졌다. 빠른 산업화로 인해 전통 옹기는 그 맥이 끊기는 듯하였으나 최근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숨 쉬는 그릇이라 칭하는 옹기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 외에도 목기, 유기 등은 실생활의 요구와 함께 오랜 전통 그대로 계속 제작되었으며, 특히 백자는 백색을 선호하는 우리 민족의 품성과 어울리고 실용적이어서 현재까지 식기로써 널리 애용되고 있다.

3) 김명란, 『생활도자 공예디자인』, 세진사, 1998. p.295



3첩



5첩



9첩



교자상

도7. 전통 반상 규범



항아리



허벅



장대(항아리뚜껑)

도8. 용기류

조선 후기의 개화기를 맞아 근대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어가면서 식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전통 식생활 문화가 많이 붕괴되었고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식습관들이 전통적인 식생활과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중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6,25 전란 이후 서구 문물이 급속히 들어오면서 밥 대신 빵을, 숯을 대신 커피나 우유를, 수저 대신 포크와 스푼을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식탁의 형식도 좌식과 입식이 혼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식기류 디자인은 해방 전의 일본공장을 답습하였으나 6,25 전란으로 그나마 모든 공장이 파손되고 만다.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도자 제품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고 수출이 시작되었으며, 1960-70년대의 산업도자 제품들의 디자인은 생산성이 용이한 분무식 시유방법과 인화문기법에 의한 단순한 디자인 제품이 생산되었고, 전사지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시기의 문양은 초기 도자 제품인 한국도자기의 황실 장미 홈세트(도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국 전사지를 사용해 문양이 섬세하고 깨끗하였다. 대개의 전사지는 옅은 인쇄 과정을 거친 전사지와 실크 인쇄에 의한 전사지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국내 생산이 안 된 시기의 전사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양과는 상관없이 장미꽃을 비롯한 꽃문양이나 작고 간단한 서양문양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도자기류(陶磁器類)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제조 기술과 슈퍼화이트(Super White), 실크화이트(Silk White)의 소지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로얄슈퍼화이트(Royal Super White)나 로얄실크화이트(Royal Silk White)와 같은 제품은 기존의 자기보다 강도가 3배나 뛰어나고 백색도와 내산성, 투광성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도10). 반면에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된 생활 환경으로 ‘한국인의 뿌리를 찾자’라는 기치아래 전통적인 식기류의 디자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여주나 이천 등지에서 다량의 백자, 분청사기, 청자식기(도11)가 제작되었으며, 광주요에서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식기류(도12)가 제작되어 독특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도9. 황실장미 홈세트 (한국 도자기)



도10. 궁모란 슈퍼화이트 접시(요업개발)



도11. 옥향 청차식기(선기호 작)



도12. 분청식기(광주요)

이와 같이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식기 디자인도 많은 변천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대의 다양화되어가는 음식 문화와 생활 패턴 속에 우리만의 개성과 정서를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는 장식기술의 발전으로 도자 식기의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통적 기법을 응용한 디자인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테이블웨어페스티벌(도13)은 일상생활에서 도자 예술과 식문화 산업에 맞게 표현한 작품들을 공모하여 도자 식기 디자인의 다양한 개발과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만들

있으며, 우리 음식과 도자기의 조화로움을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표현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 된 도자 문화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방을 운영하며 생활도자를 작품성 있게 제작하여 판매하는 전업 작가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인전을 통해서나 아트 숍(Art shop)을 통해 생활도자류들이 소개되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도14)



어머님 보름날 오희밥 먹으러  
갈게요.윤경하작



友(아직..못다한..이야기..)김윤희 외 작

도13. 토야 테이블웨어 공모전 작품



온고지신 허민자 작



백토와 도기의 조화 박영숙 작

도14. 현대작가의 생활도자 작품

## 2. 도자 식기류의 종류 및 특징

식생활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기후에 따라 다른 곡식과 채소가 재배되고, 저장 방법이 다르며, 종교, 경제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식기의 모습도 달라지는데 식기 디자인은 그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양상으로 변모해 왔다. 우리나라의 식기들도 우리 전통 사회의 멋을 드러내며 변화, 발전해 왔다.

6세기경 신라의 고분인 금령총에서 오지합, 대접 그리고 크고 작은 고배형 토기도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sup>4)</sup>, 합에는 밥을, 대접에는 국을, 고배에는 반찬 같은 음식을 담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이러한 식기류의 발달로 보아 주·부식이 분리된 유형으로 일상적인 식사의 양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sup>5)</sup>

고려 시대에는 채식의 발달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sup>6)</sup>을 보면 이때 김치의 원조로 보이는 짐채가 나오는데, 이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마늘과 생강 등의 향신료들을 넣어 담가먹는 발효 식품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식생활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상(床)의 사용이다. 삼국 시대 그릇들은 굽이 높은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의 개발로 인해 높은 굽의 그릇들에서 낮은 굽의 그릇들로 형태적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간장종지, 김치보시기 등과 같은 식기의 분리는 국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반상기의 기본 모습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반상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전이 밖으로 벌어지고 몸체가 직선형인 것, 전이 밖으로 벌어지고 몸통 밑이 약간 나온 것, 전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구분되며, 이런 형태는 고려 시대 반상기(도15)의 기본 형태로 조선 시대까지 유지되었다.

도15에서 보면 낮은 굽의 그릇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꽃이나 국화 문양 등 고려청자의 전형적인 장식들이 보이고 있다. 그릇의 종류도 밥을 담는 합, 국이

4) 『동아원색제세계백과대사전』, 동아출판사, 1986

5) 고대 민족 문화연구소, 『한국 민속대관 2』, 고려대학교, 1980. p.8

6) 고려 중기 문인 이규보의 고려시대 문집으로 시문과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53권 14책으로 되어 있으며 저자가 사망하여 그의 아들 함(涵)이 완성하였다.

나 물 또는 차를 위한 사발류와 대접, 그리고 높고 낮은 접시와 종지들로 이루어져 있어 오늘날의 그릇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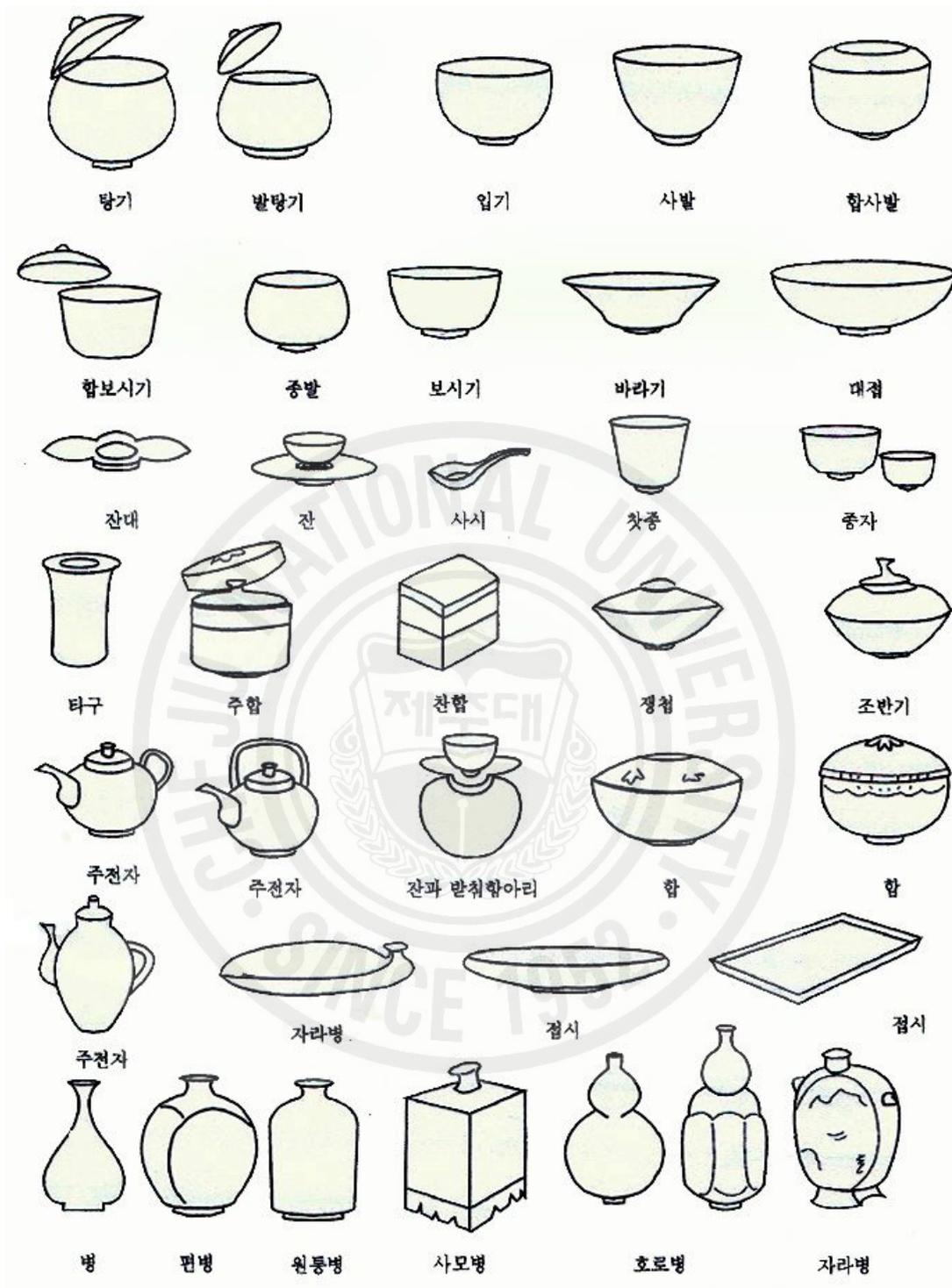
도15. 고려 시대의 반상기

조선 시대는 오늘날 한식이라 불리는 식사 방법을 규격화시켰고 유교를 중시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와 가족제도에 따른 식생활이 크게 중요시 된 시기였으며 젓가락만을 주로 사용하는 동양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수저를 사용하는 독특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는 반기(飯器)<sup>7)</sup>의 형태가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나라들과 다른 이유에서이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사발의 밑이 좁고 위가 넓으며 전과 굽 사이의 기면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숟가락 사용으로 먹기 편하도록 기면이 깊고 둥근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도16). 식기류는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른데 밥을 담는 그릇을 주발, 국을 담는 그릇을 탕기, 송늬이나 국수를 담는 그릇을 보시기, 찬을 담는 그릇을 쟁첩, 간장들을 담는 그릇을 종지, 그밖에 합, 조반기, 접시 등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기명이 있다.

고려 시대에 비하여 그릇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그 종류도 많아졌다. 도16에서 예시한 그릇들은 유교를 숭상하고 현세의 생활을 중시하던 사대부들이 주로 사용하던 백자 그릇들로서 거의 장식을 하지 않아 단아하고 소박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야외의 거동을 위한 물병이나 술병들도 보이는데 이동시 소지하기 편하게 자라병, 편병들이 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밥과 찬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도시락 형 찬합과 술을 담는 주합등도 보이고 있어 선비들의 풍류를 엿 볼 수 있게 한다.

---

7) 밥 그릇을 말함.



도16. 조선 시대의 반상기

### III. 창호 문양의 고찰

#### 1. 창호의 의미

인간은 빛과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소중한 빛과 공기는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채광과 통풍을 위해 창이라는 건축의 기본 구성 요소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창의 크기나 형태, 그리고 창을 이루는 살의 문양은 그 지역의 풍토나 생활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창호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창의 총칭으로 창살은 안과 밖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창을 통해 방안에 빛을 받아들이고 방안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기능도 한다. 창호(窓戶)란 ‘窓’과 ‘戶’를 합친 말로써, ‘窓’은 ‘window’이고 ‘戶’는 지게문 ‘door’이다. 방이나 대청 등 각 채의 실내공간에 드나들기 위한 것은 ‘戶’이고, 마당에 있는 ‘대문’은 집을 드나들기 위한 ‘門’인 것이다. 그러나 창호는 분명 채광과 조망을 겸한 두 짝의 ‘窓’이면서도 앞쪽에 누마루가 설치될 때에는 ‘門’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窓戶’, ‘窓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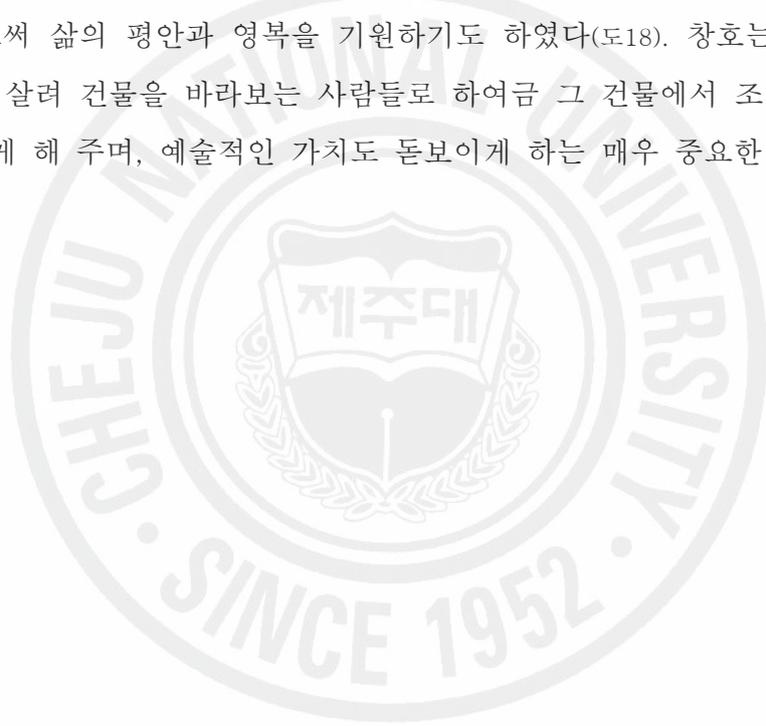
도17. 범어사 안심료 문 안쪽에서 바라본 문살



도18. 통관투조연지수금꽃살문(용문사)

창은 곧 그 나라의 정서를 담고 있다. 우리의 창문에서는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문화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조형적 특성과 기능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 창호는 창살의 짜임의 반복과 질서의 변화에서 오는 조형성이 음양의 조화를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빛을 통해 그림자로 생기는 창살 문양은 아름다운 무늬를 연출하며, 창호의 비쳐진 자연의 음영은 그 그림자가 방안에 드리워지면서 내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을 없애주고 한지 창문만의 독특한 정서를 안겨준다(도17).

창호는 채광과 통풍의 기능적 역할 외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해 오는 대상에 대한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고, 형태를 사실적 또는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의 평안과 영복을 기원하기도 하였다(도18). 창호는 건축적 기능과 미감을 살려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건물에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며, 예술적인 가치도 돋보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

8)주남철 『한국건축의 장』, 일지사, 1999. pp.82~84

## 2. 창호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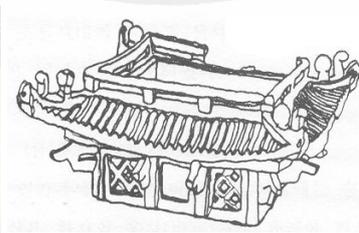
오늘날 서민 주택과 궁궐, 사찰의 창살 문양에 대한 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창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 다음에 형성된 성읍국가인 고조선이나, 부여, 예맥,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 등에서 성과 궁궐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창살은 고대에는 벽에 구멍을 뚫어 나뭇가지를 세로로 세워 꽂아 두어 생겨난 것이 그 출발이라 할 수 있겠다. 빛과 통풍을 위한 구멍에서 점차 장식적 효과를 주기 시작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계승되고 변화되어 오늘날의 창호로 완성되었다고 본다.

고구려 시대의 문과 창호는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악 3호분과 고분 벽화(도19)에 나타난 그림으로 문과 창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백제초기의 서울 몽촌토성과 공주 공산성에서도 성문의 존재가 입증되었으며 국립 부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 동탑 편(도20)사면의 중앙에는 문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있고, 좌우에는 창의 형태로 보이는 빗살로 구성된 방형의 구멍이 있어 백제 창호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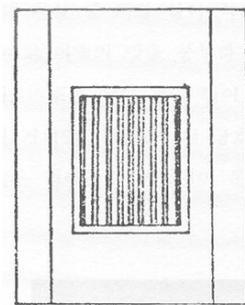
통일신라 시대에는 석조물과 석탑뿐이며 목조건물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석조 건축물의 창살 형태로 추측이 가능하다. 경남 울산군에 있는 망해사지 석조 부도와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고달사지 부도(도21)에 살창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이 손쉽기 때문에 보편적인 형태로 쓰였을 것이다.9)



도19. 안악 3호분 벽화



도20. 백제 동탑 편



도21. 통일신라 시대 고달사지 부도 살창

현존하는 창살 문양은 궁궐 건축<sup>10)</sup>과 사찰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고려 시대의 사찰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은해사 거조암과 영산전, 강릉 객사문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인 봉정사 극락전은 띠살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극락전 동측 면에는 창호가 없었으나 서측 면 오른쪽 협간에는 외쪽 빗살 창호 박여닫이가, 왼쪽 정자에는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중앙과 두 측간 모두 정자살 창호(도22)로 되어 있으며, 삼성각의 중앙 출입문은 띠살 문양(도23)으로 되어 있고 조사당 중앙 출입문 좌우에는 광창(光窓)(도24)으로 사용된 날살창이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정면 3칸 모두가 빗살 창호(도25)로 설치되어 있고 양측 면에는 교살 창호로 되어 있다. 위에서 고찰한 결과 고려 시대의 창살 문양은 날살문과 띠살문이 주로 설치되었고 정자살과 빗살문도 간혹 볼 수 있으나 장식이 많지 않은 간단한 창



도22.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살



도23. 부석사 삼성각 띠살



도24. 부석사 조사당의 날살 광창



도25. 수덕사 대웅전의 빗살문

9)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pp.27~31

호 문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건축물이 다양하게 발전하였고, 창살 문양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일반 주택에서는 용자살, 띠살, 아자살, 완자살 등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인 구조의 창살이 사용되었고, 궁궐에서는 정자살, 빗살 등과 같이 정교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는 살이 사용되었다. 특히 낙선재(도26)는 지금도 조선 조 왕족의 후예들이 살고 있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인기척이 나는 17간반의 이



도26. 낙선재의 외루와 영룡(玲龍)무늬

간오량(二間五樑)의 궁으로, 사대부의 제택(第宅)을 방불케 하는 질박한 건물이다. 언뜻 보면 소박하고 평범한 건물로 보이지만 띠살, 용자살, 완자살 문양 등



빛모란연꽃살문(개성 관음사)

솟을국모란연꽃살문(통도사 적멸보궁)

도27. 꽃살문

10) 고려의 궁궐로는 '만월대'가 있는데 현재에는 터만 남아 있을 뿐 건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다.

창호 문양의 짜임새가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사찰에는 주로 꽃살문 등이 사용되어, 단순한 형태의 기하학적 무늬에서 화려하고 섬세한 꽃살 무늬까지 다양한 문양이 존재하고 있다(도27).

조선 시대에 발달된 이러한 창살 문양은 지금도 우리의 건축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환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공간을 재창조하고 있다.



### 3. 창살 문양의 종류

한국 전통 창살에는 기능과 형태에 따라 그 구성과 용도가 다르다. 창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틀에 살을 짜 넣는 것으로 그 자체를 면으로 형성하는 것과 살의 짜임에 따라 그리고 이들 둘을 혼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지며 그 명칭도 또한 다양하다. 장기인(1980)이 분류한 창호의 기능과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창호들을 창살의 문양의 기능에 의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I. 호(戶)로서만 사용되는 것

판장문(板長門), 골판문(骨板門), 맹장자(盲障子), 도듬문, 불발기 등

#### II. 창(窓)으로만 사용되는 것

살창, 교창(交窓),

#### III. 창(窓)과 호(戶)로 혼용되는 것

용자창(用字窓), 아자창(亞字窓), 완자창, 정자살(井字), 솟대살, 귀자창(貴字窓), 귀갑창(龜甲窓), 꽃창살

전통 창살 문양으로는 연화문양, 완자문양, 아자(亞字)문양, 귀갑(龜甲)문양, 귀자(貴子)문양, 용자(用字)문양, 꽃살문양, 영롱(玲瓏)문양, 박쥐문양, 사슴과 소나무문양 등 다양한 문양이 있다. 이러한 문양들은 우리의 전통 건축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창(窓)’을 통해 표현된 창살 무늬를 한국 전통 문화의 재발견의 계기로 삼고 그 가치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1) 날살(도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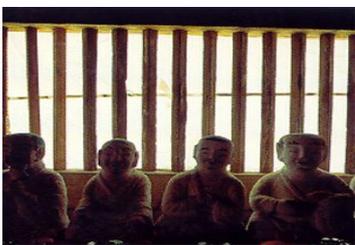
날살은 문틀 안에 세로로 살을 지른 형태이다. 여러 종류의 문살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문의 기능에 충실한 구조이다. 날살을 가진 절집 건물을 보면 대체로 오래된 것들이 많다. 부석사의 조사당과 무량수전, 해인사의 대장전,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등에서 볼 수 있다.

(2) 띠살(도29)

띠살은 날살문에 변화를 준 형태이다. 문틀에 상하 세로로 살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좌우로는 상중하 세단으로 나누어 가로살의 띠를 둔 것으로 세로살만 두었을 때의 밋밋함을 가로살의 띠를 두어 보완한 것으로서 다른 창살보다 견고하여 일반주택, 사찰, 왕궁 등에서 창의 덧문이나 여닫이로 사용되었다.<sup>11)</sup> 가장 기본이 되는 띠살의 수는 가로살의 상대와 하대의 살은 4개, 중대가 5개이며, 세로살은 11개 정도이다.

(3) 정자살(도30)

정자살은 여러 가지 문양으로 변형될 수 있는 창호 문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사찰이나 왕궁의 정면 창호와 교창으로 많이 사용된 정자살은 격자살이라고도 불리우며 한자의 정자(井字)에서 온 것으로서 가로살과 세로살이 네모 반듯이 교차한 형태이다. 정적이며 단순하지만 현대적 느낌의 세련된 문살이다. 보통은 덧문이 아닌 안문 미닫이로 사용되었으며 방안의 채광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도28. 날살



도29. 띠살



도30. 정자(井字)살

11) 장기인, 『한국 건축 대계 II』, 보성문화사, 1980. p.6

(4) 용자살(도31)

용자살은 조선 시대 창살 중 가장 살수가 적은 것이 특색으로 창호지의 면적이 넓어 시원스럽고, 여백의 맛이 풍부 할뿐만 아니라, 문을 여닫기가 손쉽게 고안된 형태이다. 주로 남향 창에 사용되었으며 사랑채에서 덧 창호 안쪽에 미단이문으로 주로 쓰였다. 용자(用字)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직으로 한줄 또는 두 줄의 살대에 가로로 두 줄 혹은 석 줄의 살대를 대어 만든 형태이다.

(5) 아자살(도32)

아자살은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미단이문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사찰에서는 승방, 왕궁에서는 내전에 주로 사용되었다. 한자의 아자(亞字)에서 온 것으로 중앙에 커다란 ‘口’자를 넣고, 4면에 각각의 숫대살을 붙여 그것을 상·하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장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그 구성이 아기자기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의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궁궐에서는 교태전(交泰殿), 대조전(大造殿)과 같은 왕비의 처소에서 볼 수 있다.

(6) 완자살(도33)

궁궐이나 기념 건축물 또는 귀족 주택에 사용된 완자살의 기본 문양은 구자(口字)의 네 귀를 다른 구변으로 각각 물려 놓은 형태이다. 완자는 만자(卍字)의 옛 글자로 중국의 음이 완으로 부르는데서 완자문이라 불린다. 창살에 사용될 경우에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세로살을 넣어 만들어진 것으로 아자살과 마찬가지로



도31. 용자(用字)살



도32. 아자(亞字)살



도33. 완자(卍字)살

비례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 내에서 크고 작은 구획이 생겨 율동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sup>12)</sup>

(7) 빗살(도34)

정자살과 함께 궁궐이나 사찰의 전각에 많이 사용된 빗살은 정자살을 45도 비스듬히 뉘어 배치한 것으로서 단조롭고 규칙적인 정자살문에 변화를 준 장점이 있다. 이러한 빗살문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사찰 건축에서 주로 보이며 정확한 간격으로 얹혀 있어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8) 꽃창살(도35)

꽃창살은 주로 사찰 건축에서 볼 수 있다. 불교에서 꽃은 법(法)이요, 부처(佛)이며 진리며 극락이다. 그 꽃과 문이 결합된 사찰의 꽃살문에서 순수한 심성과 염원을 느낄 수 있다.

꽃살문은 백년에서 삼백년 가량 된 춘양목을 사용하며 보통 분업으로 이루어진다, 틀과 살을 만드는 작업, 꽃 장식 조각과 이를 조립하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청 작업에 들어간다.



도34. 빗살



-shotelkukwa 꽃살문 · gekjamehwa 꽃살문

도35. 꽃창살

단청은 원래 문의 부식을 방지하고 충해를 막기 위한 것이나 예술적인 성격을 지닌다. 단청의 색은 청, 적, 황, 백, 흑 등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때

12) 김영중, 『창살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2. p.10

화, 모란, 국화, 연 등의 꽃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이상에서 다양한 문창살을 살펴보았듯이 우리 선조들은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는 건물에 창호를 만들어 다양한 변화를 주고 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 훌륭한 장식 효과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창호 문양을 통해 장인들의 예술적인 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건물 안팎의 모습을 개성 있게 연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 4. 창살 문양의 조형성

창은 건물에 있어서의 얼굴이고 그 건물이 나타내는 표정이다. 따라서 창을 이루는 살과 문양은 주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며, 창살 문양에 따라 건물이 새로운 감각을 지니게 되는 장식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창살의 수려(秀麗)한 문양은 좋은 뜻이 담겨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의 미감이나 종교적, 정신적인 면을 표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로써 창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조형적 특성을 갖게 되어 전통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창살 문양은 부드러우면서 강한 멋을 표현할 수 있는 나무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한지와의 만남이며, 한국의 미(美)를 대표하는 '선의 미'를 포함하고 있다. 굽고 가는 나무들이 하나의 힘의 구조 속에서 질서 있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 빛의 변화와 함께 자연과 조화되는 선의 미, 여백의미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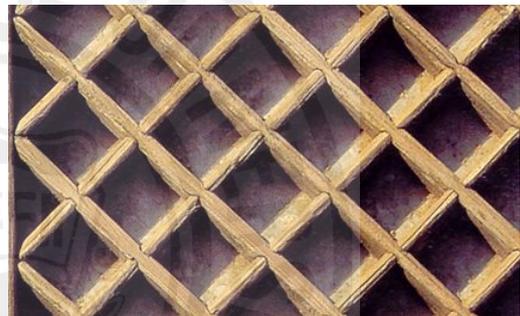
우리나라 창살 문양의 가장 큰 특징은 수평선, 수직선의 교차와 대각선 즉 사선의 배열이다. 하나의 점의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선이 생긴다.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직선이 생길 수도 있고, 곡선이 생길 수도 있다. 수직으로 구성된 날살창은 일정한 두께를 가진 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대칭적이며 반복적인 균제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장중하고 단순한 느낌이 남성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날살창의 밋밋함을 가로살의 띠를 두어 보완한 것이 띠살문이다. 이는 수평선과 수직선의 정적인 느낌 속에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이며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표현한다. 송광사 하사당의 창호(도36)를 보면 띠의 분할에서 오는 쾌적한 시각적 비례감이 매우 현대적 미감을 느끼게 한다. 직사각형의 문틀에 길게 내리뻗은 세로살의 단순함에 세 단의 가로띠를 둘러 변화와 쾌적함을 얻은 것이다.

방안에 앉아 빛에 비친 띠살문의 세 단 띠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천지인(天地人)의 질서와 조화를 보았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하사당의 띠살문은 가운데 부분의 가로살이 한 칸 더 많아 중앙의 띠를 약간 넓어 보이게 한 디자인 감각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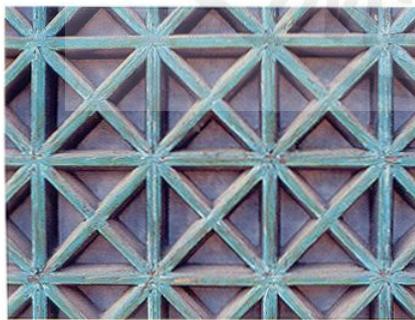
격자살문은 날살과 씨살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짠 것이고 빗살문(도37)은 날살과 씨살을 서로 어긋나게 짜서 마름모꼴이 되도록 한 문으로 일명(一名) 교(交)살문이라고 부른다. 단조롭고 규칙적인 격자살문에 동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주로 사찰에 많이 쓰였다. 또 띠살, 격자살, 빗살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변형이 만들어졌는데 격자살과 빗살을 혼용한 격자 빗살문(숫을살문)(도38)이 있고 사각형을 상하좌우로 서로 잇대 배열한 숫대살문이 있고 사각형들의 크기를 키워 살을 드물게 넣음으로써 간편하고 검소한 분위기를 내는 범살문이 있다. 또한 띠살과 빗살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제작한 범어사의 나한전의 창호 디자인은 시대적 감각을 뛰어 넘는 작품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도39).



도36. 송광사 하사당 날살문과 띠살문



도37. 빗살문



도38. 남장사 극락보전 숫을민꽃살문



도39. 범어사 나한전 어간의 띠살과 빗살문

우리나라 창살 문양은 점, 선, 면 등의 도식적(圖式的) 조형요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그 흑백의 대비로 수준 높은 미적 쾌감을 준다. 화면의 비례와 균형을 유지하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조형구성 방식은 몬드리안(Mondrian)의 추상표현주의인 기하학적 구성과도 일치하며, 선적인 구성의 아름다움과 간결하고 명쾌한 대칭성을 기본으로 한 기하학적 형태의 조화는 우리의 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대적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작품 제작 및 설명

### 1. 제작 의도 및 방법

근래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건축에서는 창호지가 사라지고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비록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이점이 있으나 빛과 공기의 투과, 온도, 습도의 조절 등에서 창호지를 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창호지에 비치는 살의 아름다움을 결코 대신 할 수 없다고 본다.

문살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공간에서 살아온 조선시대 여인들의 손에서 조각보와 같은 세계적인 미술품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건축의 창살문은 수평과 수직, 그리고 사선의 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한국인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하학적 비례의 조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창살 문양은 현대적인 미감에 전혀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흰 창호지 위에서 흑백의 대비를 이루며 비추어지는 창살의 문양들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엄격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따뜻함과 여유가 느껴진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단순 명료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여유가 느껴지는 창호 문양에서 한국적인 미의식의 진수를 맛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창호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과 접목시켜 보았다. 이 그릇들에서 창호 문양의 흑백 대비를 은은한 색상의 대비로 변환시켜 편안하고 안락한 식탁 분위기를 드러내려고 하였으며 창호지와 창살이 갖는 선과 면의 대비를 통해 한국적인 미감과 여백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창호의 문양을 그릇 전면에 시문하기도 하고 창살의 부분을 문양화시켜 그릇의 한 부분에 시문하여 여백의 미를 드러내 보기도 하였다. 또한 꽃창살에서 보이는 화려함과 단아함을 접목시켜 좋은 날 손님 접대용 그릇이나 봄날의 화사함을 표현한 그릇들로 디자인 해보기도 하였다.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갖고 있는 창호 문양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위에 시문함으로써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는 도자 식기를 제작할 수 있고 디자인 측면에서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아 우

리 문화의 재발견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작 방법은 전통적인 물레성형기법과 판성형기법을 이용하여 성형하고 창호 문양을 박지기법, 선각, 하회 등의 기법으로 장식한 후 1250℃에서 환원염소성을 하였다.



## 2. 작품 설명

### 작품 1. 좋은 날

도35의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의 솟을국화 꽃살문은 백, 청, 황, 록, 흑의 화려한 오방 색깔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창살 문양이다. 본 작품에서는 이 꽃살문을 선 문양으로 단순화시키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안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자의 푸른 색을 사용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좋은 날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였다.

원형 평반과 접시는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 그릇으로써 대 접시와 앞 접시로 사용할 수 있는 소 접시의 세트 개념으로 제작하였다. 아침 식탁의 샐러드는 우리의 입맛을 돋우고, 건강을 지켜주는 과수꾼 역할을 한다.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는 식탁위에 이 접시들은 작은 기쁨을 담아 내고 있다.

소지는 산백토를 사용하여 물레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고, 반건조 상태가 되었을 때 꽃살문을 선각으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870℃에서 1차 소성한 후 청자유를 분무기법으로 시유하였고, 1250℃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1. 좋은 날.

## 작품 2. 여유

우리 전통가옥 문살의 아름다움은 공간 밖에서만 감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간 안에서 느끼는 것이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다.

특히 본 작품에서 응용한 광창의 살문양은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서 영롱(玲瓏) 무늬라 불리었다. 영롱 무늬는 얼음이 깨어져 생기는 빙렬을 닮아 있는데 장인들은 그 면적과 간격을 보기 좋게 배열하여 미감을 높였다.

이 디자인은 창호 문양 뿐 아니라 낙선재 외루의 방화담벽(도26)에서도 볼 수 있다.

바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은 즐거운 시간과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한다. 먹거리를 통해 인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풍습을 지녀온 우리 민족이다. 이 작품에서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큰 접시에 담겨 있는 음식을 나누며 베푸는 정겨움이 우리들 일상을 좀더 넉넉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지는 소박하고 자연에 가까운 색상으로 분청을 사용하였고 판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장식기법으로는 소지위에 화장토를 바른 후에 영롱 무늬를 그렸으며, 여백을 긁어내어 소지의 바탕색을 드러나게 하는 박지기법 사용하였다.

870℃에서 1차 소성한 후 재유를 덩빙기법으로 시유하였고, 1250℃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2. 여유.

### 작품 3. 봄을 기다리며

산속에는 기쁨이, 샘 속에는 생기가 가득하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을 때면 매화꽃이 피어 은은한 향으로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범어사 팔상전의 격자매화꽃살문(도35)은 단정하며 검소함을 덕으로 갖춘 사람을 떠오르게 한다.

그릇 하나하나에 매화꽃살이 교차 하는 부분의 매화를 청화로 시문하여 매화의 아름다움이 그릇을 사용하는 이에게 봄을 느끼게 해주길 기대하였다.

소지는 백자를 사용하였고, 관성형기법과 물레 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장식 기법은 청화 안료로 매화꽃살 무늬의 부분을 그리고 꽃 부분에는 진사유약으로 봄의 색상인 분홍색을 발색시켰다.

870℃에서 1차 소성한 후 백유를 분무 시유하고 그 위에 분홍 안료를 부분적으로 분무 시유한 후 1250℃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3. 봄을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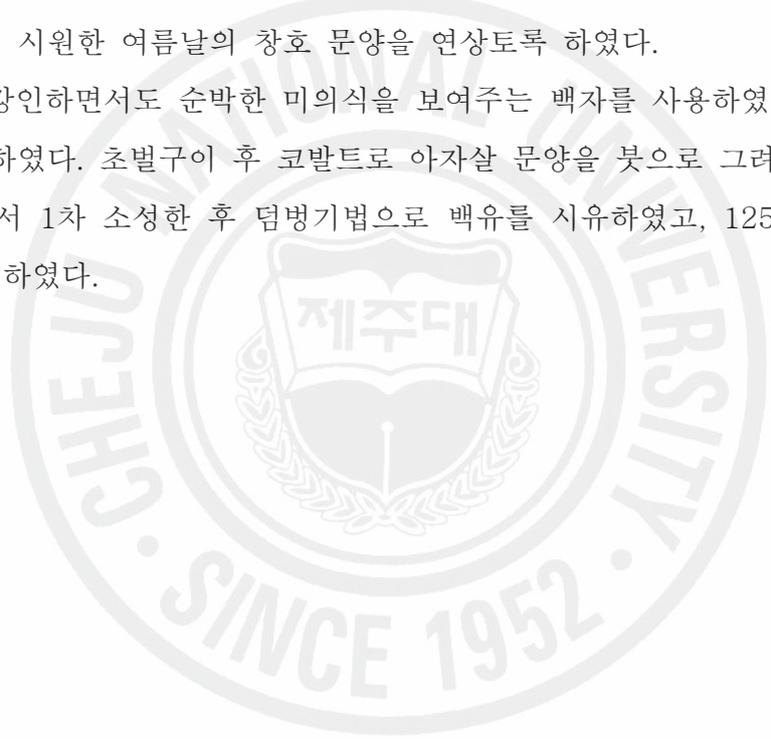
#### 작품4. 초대

평범한 일상 속으로의 초대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음식을 나눠 먹는 넉넉함이 있다.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다. 이 작품에는 그 심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아(亞)자의 글자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양이다. 아자살(도32)문양은 궁궐이나 일반 가옥에서 주로 여성적인 공간에 많이 사용된 장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형태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아자살의 중앙 부분만을 문양화시켜 청화로 그려 넣음으로써 시원한 여름날의 창호 문양을 연상토록 하였다.

소지는 강인하면서도 순박한 미의식을 보여주는 백자를 사용하였고, 물레 성형으로 제작하였다. 초벌구이 후 코발트로 아자살 문양을 붓으로 그려 넣었다.

870℃에서 1차 소성한 후 덩빙기법으로 백유를 시유하였고, 1250℃에서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4. 초대.

## 작품 5. 창밖에는

완자무늬(도33)의 역사는 매우 오랜 것으로 그 의미 또한 다양하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길상과 상서로움의 상징으로 여기며 시간과 시방(示方)의 공간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완자문살은 절에서 많이 쓰이고 궁궐이나 민가에서도 흔히 보인다.

본 작품은 이러한 상서로운 문양의 완자문을 그릇 전면에 시문하고 4개의 그릇을 한조로 연결하면 마치 창호지를 통해 비치는 완자문살을 보는 듯 느끼게 하였다.

현대의 식기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수공예적인 장식을 통하여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작품은 식기의 기능성, 장식성을 고려하면서 미적인 요소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록 벽에 걸어 창밖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소지는 옹기토와 동영토를 사용하고 판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장식기법은 반건조 상태가 되었을 때 화장토를 바르고 완자살 무늬를 박지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870℃에서 1차 소성 후 재를 부분적으로 분무 시유한 후 1230℃ 산화염 소성과 덤병기법으로 돌로마이트유를 시유한 후, 1250℃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5. 창밖에는...

## 작품 6. 가을에는...

차를 마신다는 것은 입으로는 은은한 맛을, 코로는 깊은 향기를, 그리고 손으로는 찻잔을 통해 전해지는 물의 따뜻한 감촉과 온도를 느끼면서 마시는 것이다.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다독여 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력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본 작품은 한국의 전통 차와 다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다과상이다.

가을에는 모과차, 대추차, 국화차등 한국 고유의 차를 마시면서 다도의 엄격한 예법과는 달리 편안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릇의 문양은 아자살에서 변형시킨 희아자살 무늬를 시문하였다. 여성적인 공간에 많이 사용된 희아자살 무늬는 중앙에 꽃 한 송이와 더불어 여백의미를 느끼게 한다.

소지는 동영토를 사용하였고 관성형기법으로 제작 하였다. 반건조 상태가 되었을 때 희아자살 무늬를 그려 화장토를 바른 후 굽어내는 상감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870℃에서 1차 소성한 후 덩빙기법으로 돌로마이트유를 시유하고, 1250℃에서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 작품 7. 겨울 손님을 위한 상차림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수저받침에 수저를 올려 상을 차리고, 꽃 한 송이로 아름다운 식탁에 마음을 새겨 넣으면, 먹는다는 행위는 비슷하게 보여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격자살문은 낱살과 띠살을 같은 간격의 사각형으로 짠 것인데 오래 접해도 물리지 않는, 담담하고도 편안한 느낌을 갖고 있다. 이 격자살문을 약간 변형시키고 단순화시켜 그릇 둘레에 시문하여 보았다. 또한 재유를 시유하여 전통적인 소박하고 자연에 가까운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소지는 분청토를 사용하였고 물레성형기법으로 제작 하였다. 반 건조 상태에서 굽을 깎고 화장토를 바른 후 격자살 무늬를 디자인하여 박지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870℃에서 1차 소성하고 덩병기법으로 재유를 시유한 후 1250℃ 환원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7. 겨울손님을 위한 상차림.

## V. 결론

식기는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민족적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아름답고 개성 있는 식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식문화의 올바른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여유와 삶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여기에 한국의 전통적 미감이 담기도록 디자인된 도자 식기가 제작되어 그 예술성이 보편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전통적 창호 문양의 조형성을 연구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도자 식기 위에 시문하여 전통적 미감이 담긴 식기를 디자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창호 문양의 조형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창살의 문양들이 수평과 수직선, 그리고 사선의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 명쾌한 면의 분할에서 오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사찰의 꽃살문에서는 화사한 문양과 색채들이 한국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현대적 감각이 담긴 문양으로 디자인하고 변환시키는 데 손색이 없었다.

둘째, 창살의 문양들을 도자 식기 전면에 시문하기도 하고, 부분만을 재구성하여 여백을 남겨 시문하기도 하면서 한국적 미감이 담긴 그릇들을 제작한 결과 기하학적 조형미를 갖춘 창호 문양의 디자인이 도자 식기와 잘 어울렸으며 담담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셋째, 전체적인 제작 방식이나 유약은 전통적 기법에 기초하였고 시문 방법은 주로 박지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선각을 하거나 청화만으로 문양을 그려 넣음으로써 되도록 색채를 억제하고 전통미의 담백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전통 창호 문양을 식기 디자인에 응용한 시도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일조하고 생활 속에서 한국의 전통미를 맛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고 본다.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적 미감이 담긴 격조 높은 생활 도자기들의 디자인 연구가 계속되어 민족적 정서가 담긴 도자 식기들이 제작됨으로써 한국의 미의식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전통미가 일상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1986. 『동아원색세계백과대사전』, 동아출판사.
- 강인희, 1991. 『한국 식생활사』, 삼영사.
- 고대 민족 문화연구소, 1980. 『한국 민속대관 2』, 고려대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1997. 『한국고대의 토기』, 통천문화사.
- 김명란, 1998. 『생활도자 공예디자인』, 세진사.
- 김미영, 1996. 『한국 창살무늬를 이용한 조형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중, 1982. 『창살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남기명(발행인), 2003. 『한국생활도자60년』, 세계도자기엑스포.
- 변은미, 2005. 『감물염색을 이용한 발 디자인 연구』, 제주대학교.
- 서길용, 1991. 『도자실기』, 조형사.
- 신승미 · 손정우 · 오미영 · 송태희 · 김동희 · 안채경 · 고정균 · 이숙미 · 조민오 · 박금미 · 김영숙, 2005. 『우리 고유의 상차림』, 교문사.
- 이병철, 1984. 『호암미술관명품도록』, 삼성미술문화재단.
- 이영해, 2000. 『아름다운 우리상차림』, 디자인하우스.
- 임도빈, 2006. 『제3회 토야테이블웨어페스티벌』, 세계도자기엑스포.
- 임양목, 2003. 『사찰 꽃살문』, 솔출판사.
- 장기인, 1980. 『한국 건축 대계 II』, 보성문화사.
- 장수근 · 이광유 · 이두현, 1983. 『한국민속학개설』, 학원사.
- 주남철, 2001.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 주남철, 1999. 『한국건축의 장』, 일지사.
- 차민도, 1991. 『빛깔있는 책들 106 - 옹기』, (주)대원사.
- 차용준, 2001. 『전통문화의 이해-3권』, 전주대학교 출판부.
- 한길홍(편집), 2002. 『월간도예』, (주)월간세라믹스.
- 황혜성, 1991.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